

## 開 會 辭

李 泰 旭

〈西江大東亞研究所長〉

존경하는 李洪九 國土統一院長官, 鄒 堅 中華民國 駐韓大使, 그리고 멀리 臺灣에서 第10次 韓中學術會議 參席을 위하여 오신 趙春山 團長을 비롯한 中國學者 여러분, 또한 이 會議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쁜 日程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신 韓國學者 및 內外貴賓 여러분, 저는 第10次 韓中學術會議을 주관하는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를 代表하여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中兩國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역사적으로는 한 文化圈의 유대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兩國이 같은 심정으로 서로 이해하며 협조를 구하는 친근한 우방으로서의 關係를 갖게 된 역사적 사실은 兩國 모두 國土와 民族의 分斷으로 40餘年間 뼈아픈 고통을 같이 겪어 왔다는 것입니다. 韓中學術會議도 分斷國으로서 갖는 공통된 學問的 關心事를 中華民國과 大韓民國 學者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研究, 討論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취지의 韓中學術會議도 어언간 이제 1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주요한 年例學術會議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會議를 준비한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번 第10次 會議의 主題는 “分斷國家의 文化統合”으로 정했습니다. 共產主義國家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自己矛盾의 한계를 느껴 스스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國際環境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和合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와 같은 처지

에 있는 東西獨을 포함한 民族分斷國의 共產圈側에서는 體制改革과 開放에 대단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自由進營의 우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位相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같은 민족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서 접촉을 피하여 왔지만 이제는 소극적이거나 非政治的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分斷 40여년 동안 思想과 理念을 달리하면서 살아 온 우리들은 民族의 同質性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學術會議에서는 宗教, 言語, 藝術 및 政治文化 分野에서 韓中兩側의 專門家들이 모여 文化統合의 가능성을 比較 分析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分析과 討論을 통하여 分斷에서 오는 異質性을 밝힘으로써, 分斷된 民族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中國에서 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말씀은 비록 韓國에서 滯在하는 期間은 짧지만 더욱 서로간의 깊은 友好關係를 위해서 韓國社會와 韓國人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旅程이 되시기를 祈願합니다.

이 會議를 후원해 주신 國土統一院 여러분과 西江大 東亞研究所의 여러분들의 勞苦에 감사드리며 開會辭를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1989. 10. 23.